

#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탄뎀 학습 모델에 관한 연구<sup>\*1)</sup>

박옥현\*\*, 김영순(인하대)\*\*\*

<Abstract>

Park, Okhyun · Kim, Youngsoon. 2022. A Study on the Tandem Learning Model for parents an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using traditional fairy tales. *Language and Culture* 18-1: 77-102. This study was conduc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not only caregivers but also the first language educators. This study provided topics to promote convers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explored teaching-learning models for bilingual education (Korean-mother tongue). The research question for this is how about a teaching-learning model for bilingual educatio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is problem, a tandem learning model was proposed that encourages companion language educa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so that parents an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can naturally learn Korean and their mother tongue, which can be a solution to thei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poor learning, and school maladjustment. In particular, a tandem learning model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traditional fairy tales was proposed. (Inha University)

**Key words:** traditional fairy tales(전래동화), multicultural families(다문화가정), parents and children(부모와 자녀), a tandem learning model(탄뎀학습 모델)

---

\* 본 연구는 제32차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2021년 5월 29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제1 저자

\*\*\* 교신저자

## 1. 서론

초국적 이주에 따른 전 세계적인 다문화 사회화로의 움직임은 한국사회에도 감지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구성원 삶도 변화를 예견하고 있다.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인 총인구의 4.3%에 달하며(행안부, 2020),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전체의 3.0%에 달한다(교육부, 2021). 특히 다문화 학생의 부모 출신국을 보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 (한국계) 중국, 일본 순으로 많다(교육부, 2021). 또한 다문화가구의 특성을 보면, 결혼이민자 가구가 85.7%이고, 이들 중 여성이 82.7%이다(여성가족부, 2019). 이런 통계치는 한국 사회구성원이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이주민과 더불어 살게 되었고, 이에 따른 갈등이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들 스스로의 문화적응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 다양성 확대에 따른 상호문화 인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호문화 인식에 있어서 다문화 학생은 자신의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는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권순희(2009), 모경환·이재분·홍종명·임정수(2015), 박영순(2005), 한명숙(2017), 홍종명(2012) 등은 언어교육에 있어 다문화가정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 있다. 특히 언어교육에 있어 모국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한데,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있어 모국어<sup>1)</sup>를 빨리 배우는 것은 언어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어머니와의 관계 향상, 자아 정체성 형성에 있어 긍정적이다(갈라노바딜노자·박미숙·김영순, 2016: 320). 또한 이들이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게 된다면 앞으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보았다(장남혁, 2014: 278).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언어교육에 있어서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은 첫째, 모국어는 자녀의 지능 발달, 학습능력 발달에 영향을 준다(권순희, 2009: 72). 즉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은 두 언어 간의 전이 관계, 즉 상호관계에 있

1) 본 연구에서 모국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나고 자라며 습득한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말한다.

다. 따라서 현지어가 아닐지라도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다문화가정 부모는 자신에게 가장 자신 있고 언어적 경험이 풍부한 언어로 자녀를 양육함이 필요하다(박정은, 2007: 84; 권순희, 2009: 70). 둘째, 모국어를 아는 자녀가 엄마의 가족과 소통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122,093명(76.3%)으로 가장 많은데(교육부, 2021), 모국어를 익히지 못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엄마 가족과 소통 단절의 가능성이 크다(권순희, 2009: 71). 셋째, 이중언어는 한국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는 언어를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사회구성원의 소수 언어를 지키고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처럼 영어 단일 언어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더 크다. 또한 전 지구적 인구이동의 증가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은 국내 인력 부족, 경제 침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민의 유입은 필요할 것이다(모경환 외, 2015: 207). 이는 단일어 기반 사회에서 다국어 기반 사회로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에서 한국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은 국외 활동은 물론 국내 사회구성원 간의 소통과 통합을 위해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는 모유(母乳)처럼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국출신 부모 언어 사용에 대한 긍정 응답(40.7%)은 부정 응답(36.8%)보다 높으나(여성가족부, 2019: 158), 실제 해당 언어를 배우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비율은 25.1%에 불과하다(여성가족부, 2019: 520). 이는 한국어가 절대 공용어인 한국어 기반 사회에서 외국출신 부모의 언어가 소수 언어(minority language)로 인식됨에 따라 해당 언어가 소외된 결과라 할 수 있다(한명숙, 2017: 308).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교육은 한국어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박영진·장인실, 2018: 228).

낮은 한국어 능력의 부모에게 양육되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또한 낮은 한국어 능력을 보인다. 이는 학교에서 타 교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타 교과에서 또한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며,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학습부진이 나

타난다. 그러나 학습부진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한 교사에 따르면, 학습부진 원인은 ‘한국어 능력 부족(20.5%)’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족, 관심 및 돌봄 결여(22.3%)’가 더 크다(오상철·이화진·장영숙·구영산, 2013: 77-84). 즉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부진 원인은 부모의 낮은 한국어 능력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족에 있었다. 예컨대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보면, ‘어머니와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일반 청소년(1.4%)에 비해 다문화가족 자녀(10.5%)가 월등히 높는데(여성가족부, 2019: 498). 이는 다문화가정에 엄연히 존재하는 어머니-자녀 간의 언어장벽과 맥을 함께 한다(오혜정, 2015: 221).

부모와의 대화는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고(안정자, 2014: 71), 초기 청소년이 부모와 나누는 대화는 청소년의 시민성에 영향을 미친다(박옥현, 2017: 58-60).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경험은 심리적 위축을 낳는 반면, 부모와의 대화는 이를 조절한다(유지희·황숙연, 2018: 185). 특히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신혜숙·민병철, 2021: 215). 이를 상기할 때, 위의 결과는 한국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야 하는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화젯거리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유치원이나 학령기에 접어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능력은 자신의 어머니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김영순, 2019: 197-198). 그래서 ‘자녀에게 한글을 직접 가르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는 학령기에 접어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오히려 한국어를 배우거나(원순옥·이화순, 2015: 108),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자녀가 어머니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순희, 2009: 75; 이춘양·김영순, 2020: 32). 이에 따라 학령기에 접어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한국어 학습에 있어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수동 학습자가 아닌 자기주도적이며 능동적인 학습자로 바라보아야 한다. 예컨대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어 교육 멘토가 되고, 그 자녀의 어머니는 모국어 교육 멘토가 되어 서로 교수-학습하는 협동학습을 제안한다.

한국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와 관련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이승숙·곽승주, 2013: 306), 2012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다소 주춤하다가 2015년에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후 다소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와 관련한 연구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구주제별 연구동향을 보면, 총 89편 중 이론, 정책방안 29편(31.5%)으로 가장 많고, 실태와 현황 16편(16.3%), 인식, 태도, 신념 그리고 발달이 각각 13편(14.1%), 프로그램 개발 12편(13.0%), 프로그램 경험 9편(9.8%) 순으로 많았다(이승숙 외, 2013: 307). 덧붙여 송채수(2018: 272-274)는 다문화가정 내 이중언어사회화는 자녀의 자존감과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존감이 낮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이중언어적인 사회화는 치유 및 사회적응의 수단, 부모·자녀 만족도를 높이는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직접 자녀에게 모국어 가르칠 것과 사회통합 및 미래육성 차원에서 ‘어머니 모국어 배우기’의 필수과목 지정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에 관한 학계의 높은 관심과 연구는 이어지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모델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모-자녀의 대화 촉진을 위하여 화제거리를 제공하며 (한국어-모국어)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모델을 찾으려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은 어떠한가? 이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가 이중언어를 습득을 위해 협동학습하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선되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tandem 학습(Tandem Learning)

협동 조직의 역사는 지구상에 인간이 살아온 역사만큼이나 길다. 예컨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바빌론의 정원 등에서 협동 조직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김영순, 2019: 33). 언어학습에서도 협동은 중요한데, 한 명의 교수자가 다수의 학습자를 지도함에 있어 개인차를 고려하며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목표어 사용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소집단 활동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동기나 학습 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소집단 활동은 불평등한 상호작용과 학습 성과가 야기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이 대두되었다.

협동학습은 이질적 성격의 구성원이 서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구성원과의 긍정적인 상호의존성과 지도력을 발휘하며, 관계가 지속되고 스스로 배우는 활발한 집단 활동이라 할 수 있다(배고은, 2011: 18-19).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사회생활에서 사회적으로 상호의존하게 되는데,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려 함께 일하는 긍정적인 상호의존을 협동이라 한다(김영순·이선정, 2020: 44). 긍정적 의존성은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헌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긍정적 상호의존성의 존재 여부는 협동학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Johnson & Johnson, 1990).

탄뎀 학습(Tandem<sup>2)</sup> Learning은 서로의 지식을 배우고 싶어 하는 두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을 상대방에게 가르치고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배우는 협동학습의 한 유형이다. 탄뎀 학습을 위한 학습조건을 정리하면 첫째, 서로 다른 모국어 화자가 두 명 이상 학습자로 신청하여야 한다. 둘째, 서로 상대방의 모국어를 목표어로 배우기를 원하여야 한다. 셋째,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서로 도우며 학습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넷째, 자기 주도성의 원칙에 따라 자율학습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이나현, 2020: 78; 진광호, 2010: 33; 이수권, 2008: 4). 즉 탄뎀 학습은 서로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두 학습자가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모국어를 가르치고 목표어를 배

2)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탄뎀(Tandem)을 ‘두 사람이나 기계가 그룹으로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많은 사람에게 탄뎀(Tandem)은 2인용 자전거로 알려져 있다(황귀연, 2014: 99).

우는 자기주도적인 협력학습을 말한다. 따라서 탄뎀 학습은 ‘상호성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과 ‘자기 주도성의 원칙(principle of learner autonomy)’을 기본으로 한다. 상호성의 원칙은 참여자가 상대방과 함께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 주도성의 원칙은 학습자가 학습 목표와 방법, 학습 자료까지 모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하수권, 2008: 4).

본 연구의 참여자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이다. 이들 중 어머니를 보면, 다문화가정 부모 중 89.8%가 결혼이주여성(母)이고, 이들의 학력은 고졸(49.2%), 중졸(24.1%), 대졸(15.9%)이나(여성가족부, 2019: 490-493), 모국어 능력(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은 가능할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TOPIK)을 보면, 초급 수준인 1-2급을 24.1%, 3-4급은 29.2%, 5-6급은 26.1%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 178). 특히 본 연구참여자(母)의 한국어능력(TOPIK)을 3급으로 하였는데, 이는 구어와 문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가 가능하므로 자녀와 최소한의 한국어로 소통하며 탄뎀 학습과 승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능력은 한국 생활의 기본 요소로서 생활 만족도(김선숙·고대영·김혜원·조요셉·최성은·민기채, 2020: 70)와 취업(이은희·이은미, 2012: 71)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탄뎀 학습을 통한 한국어 능력 향상은 여전히 중요하다.

한편 저개발 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받지 못하며(박현선·이채원·노연희·이상균, 2012: 366; 이은하, 2010: 115-124), 자녀양육에서 시부모의 무시와 간섭을 경험하고(오혜정, 2015: 222), 학령기에 들어선 다문화가정 아동은 한국어에 미숙한 어머니를 무시한다(손혜진, 2010: 23; 오혜정, 2015: 221). 이와 같은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배제는 자녀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데, 자녀가 단지 한국어만을 사용할 때, 부모의 권위 상실과 가족 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박현선 외, 2012: 368; 이은하, 2010: 124-127). 또한 다문화 학생 언어능력은 학교요인보다 가정요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가정에서의 이중언어 사용에 따른 언어지연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단언어 사용 집단(모국어 또

는 한국어)보다 이중언어 집단의 국어 하위 모든 영역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다(박혜랑·김현철, 2016: 186-187). 따라서 본 탄뎀 학습을 통해 다문화 가정 어머니는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며 어머니 권위를 찾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은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모두의 한국어-모국어 능력 향상을 기대하게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인 자녀는 학령기(만 6세~12세, school age) 초등 3학년 학생인데, 이들은 이중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에 있기에 가정 내 생활 언어 중심의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적기라 할 수 있다(이경화, 2019: 227; 한명숙, 2017: 304). 특히 전 국민의 80%가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핀란드의 정규 이중언어교육 또한 만 9세에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뇌 발달 단계에 맞춘 선택이며(이경화, 2019: 227; EBS 놀이의 힘 제작진, 2020: 31), 10세 이전의 이중언어교육은 제1언어의 상실이 우려되는 바(김옥선, 2010: 505), 이에 대한 배려이다.

한편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sup>3)</sup>의 한국어와 모국어 능력은 서로 상이한데. 한국어 능력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가 5점, 쓰기가 4점인 반면, 가정 내 동반언어(베트남어)는 듣기 4점, 말하기 3점, 읽기 2점, 쓰기 1점으로 나타났다(한명숙, 2017: 317). 따라서 이들에게 외국출신 부모 나라의 언어기능을 균형있게 교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덧붙여 본 연구참여자인 다문화가정 부모-자녀의 모국어-한국어 능력상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송향근(2004 :57)은 “탄뎀 학습 참가자 간에 수준의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으나 각각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한 적어도 해당 학습자보다는 낮기 때문에 생산적인 학습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부모-자녀의 모국어-한국어 능력은 서로의 목표어보다 월등할 것으로 유추되는 바 본 연구는 ‘상호의존성’, ‘자기주도성’에 따른 탄뎀 학습의 가능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족 간 협동학습 관련 선행 연구를 보면(김수현·채정현, 1998: 64), 초기 청소년기 아동들은 부모 또는 가족과 점차 멀어

3) 위의 국제결혼가정(한국인 아버지, 베트남인 어머니) 자녀는 초등학교 4학년이다.



지며 자기 자신과 친구에게 의존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모와 강한 애착을 형성, 유지하고 있으며 부모의 정서적 승인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Glasser(1988)는 청소년기의 반항을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에서 찾았는데, 이의 해결방안으로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협동 학습을 제안하였다. 협동학습에서 모둠원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고 긴밀히 협력해야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대화는 필수적인데(김수현 외, 1998: 59-60), 이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응한다.

## 2.2 탄뎀 학습과 전래동화와의 관계

탄뎀 학습이 지향하는 세 가지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이문화 이해 능력 향상, 자기주도력 향상에 있다(Brammerts, 1995). 이와 관련하여 본 탄뎀 학습의 제재로서 전래동화<sup>4)</sup>와의 관계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탄뎀 학습을 통한 언어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언어표현을 외우고 익히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쓰는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여야 한다(김훈·이수정, 2021: 509). 예컨대, 한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교육을 바탕으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래동화에 대하여 알아보면, 전래동화는 전승, 전파되어 오며 조상들에 의해 갈고 다듬어진 것이기에 민족의 생활과 이상이 녹아 있어 그 나라의 가치와 정서가 담겨 있다(안부영, 2010: 216). 또한 전래동화는 그 민족이나 집단의 가치관, 사상, 신앙, 정서, 생활, 습속 등의 모든 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전래동화는 이주민이 한국어 문화를 이해하는 제재로 제안되고 있다(고경민, 2012; 고경민·이소영, 2009; 구선희·유승금, 2008; 조항록, 2004). 예컨대 한국 전래동화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국과의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생활방식 또는 사고방식 상의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

4)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한국어-모국어 중심의 이중언어교육은 물론 소통과 협력, 그리고 상호문화 이해를 주목적으로 함에 따라 다문화 동화의 범위를 '이주민의 모국문화가 드러나는 전래동화'로 한정한다.

복하도록 하고, 자신의 문화와 다른 한국의 문화를 자신의 판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경민, 2012: 17). 즉 한국어 교재인 한국 전래동화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의 공통점을 발견하며, 자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 9개 대학 및 재단<sup>5)</sup>에 수록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빈도를 보면, 총 49편 중 『흥부와 놀부』가 5회로 가장 높다. 이는 민병곤·김호정·구본관·민현식·윤여탁·김종철 외(2020: 384)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다. 덧붙여 베트남의 달랏대학 내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또한 『흥부와 놀부』는 한국어 교재로 제시되고 있다.<sup>6)</sup>

둘째, 탄뎀 학습은 이문화 이해 능력 향상을 돕는데, 이는 상호문화교육과 맥을 함께 한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문화에서 벗어나서 이문화를 받아들이도록 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가 다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유사성’에 입각하여 서로의 문화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즉 나와는 다른 타인 또는 타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너와 내가 다르다는 인식보다는 유사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있을 때 타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래동화를 활용한 상호문화 인식 과정은 차이보다는 유사성을 적용하여, 차이 인식에서 인류 보편가치 인식, 이문화 이해의 구조로 나아가게 된다(백목원, 2018: 699). 이와 같은 인류 보편가치의 인식은 상호문화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권혁래(2018)가 제시한 전래동화<sup>7)</sup>에는 대개 전설과 민담을 바탕으로 전래

5) 9개 대학 및 재단은 고려대, 건국대, 서울대, 서강대, 세종대, 신라대, 이화여대, 연세대 그리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다(탕티튀뜨영, 2021: 34-39).

6) 2021년 11월 27일,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연합학술대회시 베트남 달랏대학 한국학과 탄푸영 교수님의 진술에 따르면, “『흥부와 놀부』는 한국어 교육과정 3급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다.

7) 경인교대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2012) 『다문화 이웃이 직접 들려주는 다문화 전래동화』. 본 연구자는 K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의뢰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상담에서 본 도서의 전래동화를 부모 나라에 맞추어 한국어 읽기교재로 활용하였다. 본 도서는 결혼이주민의 작가 참여 방식이 전면적으로 채택되고 각 작품 말미에 동화기록자의 이름

동화로 개작된 총 33편의 다문화 전래동화가 수록되어 있다. 본 도서의 작품들은 서양의 『신데렐라』가 한국의 『콩쥐팥쥐』와 닮았듯이, 베트남의 『별나무 이야기』, 우즈베키스탄의 『황새』는 한국의 『홍부와 놀부』와 닮았다. 예컨대 착한 동생은 부자가 되고 욕심 많은 형은 벌을 받는다는 한국의 『홍부와 놀부』는 베트남의 『별나무 이야기』, 우즈베키스탄 『황새』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황새』는 가난한 농부가 황새를 구해준 덕분에 부자가 되고, 욕심 많은 농부는 황새를 괴롭힌 대가로 벌떼의 공격을 받아 죽는다는 내용으로 흡사 한국의 『홍부와 놀부』의 제비를 떠올리게 한다. 이를 증명하듯 우즈베키스탄 다문화가정 자녀<sup>8)</sup>는 본 도서의 일부를 읽고, “이거 우리나라 『홍부와 놀부』잖아요”라는 반응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그는 어머니 나라와 한국 문화에서 추구하는 인류 보편가치를 확인하며, 그가 느꼈을 동질감, 친근감을 짐작할 수 있다. 덧붙여 이승숙 외(2013: 361-369)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전래동화를 통해 어머니와의 이중언어 경험을 제공하였다. 그럼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며 모국어 노출의 기회를 갖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다문화 전래동화를 활용한 활동은 자녀의 이중언어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한국어-모국어 교육은 문화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소통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탄뎀 학습은 상호성의 원칙과 자기주도성을 기본으로 하는데, 전래동화를 활용한 이중언어교육에서 자기주도성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박현선 외(2012: 383)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자녀에게 본국의 문화와 언어가 보다 많이 노출될 때 적극적 양육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본 탄뎀 학습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보다 주도적으로 본국의 문화와 언어를 자녀에게 전달하려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과 간략한 신상정보가 있다. 본 연구자가 동화기록자의 정보를 전달하였을 때, 다문화 가정 자녀(초등 2년, 여, 국내출생)는 “우리 엄마한테.”라며 친근감과 동질감을 표현하였다.

8) 위 자녀는 2018년 K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의뢰된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다.

덧붙여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은 유치원이나 학령기에 속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능력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김영순 외, 2019: 197-198), 학령기에 들어선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국어가 미숙한 부모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순희, 2009: 75; 원순옥 외, 2015: 108; 이춘양 외, 2020: 32). 또한 2017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은 다문화가정 자녀와 조손가정 자녀 등의 기초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글교육책임제’<sup>9)</sup>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는 초등 저학년에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자기주도 학습자로서 준비가 가능하며, 탄뎀 학습을 위한 교수자로서의 역할은 학습 동기가 되어 본 탄뎀 학습 참여자로서 역할 수행의 가능성이 크다. 덧붙여 42.4%의 다문화가족 자녀는 앞으로 외국계 부모 나라의 언어를 한국어만큼 잘하고 싶고(여성가족부, 2019: 526), 결혼이민자는 자녀가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를 원하며(어수진, 2011: 153), 이를 위해 77.8%의 결혼이민자는 자녀를 모국으로 유학 보낼 의향이 있다(여성가족부, 2019: 152). 따라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탄뎀 학습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와 같이 전래동화를 활용한 탄뎀 학습은 탄뎀 학습이 추구하는 세 가지 목표(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이문화 이해 능력 향상, 자기주도력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본 탄뎀 학습에서 한국-다문화 전래동화는 첫째, 언어교육에 있어 반복성과 지속성은 중요한데, 다른 듯 같은 내용의 한국-다문화 전래동화는 이야기 구조가 유사하고 문형이 지속되며, 유사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안부영, 2010: 216-221).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 둘째, 서로의 문화 속에 공존하는 인류의 보편가치를 발견하게 하여(백목원, 2018: 697), 다문화가정 부모-자녀에게 동질감, 친근감을 확보하게 하며, 상호문화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부모-자녀는 긍정적 상호의존성, 자기주도성을 발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본 탄뎀 학습에서 한국-다문화 전래동화를 비교 분

9) 교육부에 따르면, “한글교육책임제”는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된 2017년부터 한글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한글교육 시간을 집중 배치하여 1학년 때 모든 학생들이 한글을 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교육부, 2019).

석하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말하기 시험, 쓰기 시험 등을 연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자녀는 자기주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수-학습자가 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부모는 모국어로 자녀에게 학습 제재를 전달하며 체계적인 모국어 교수가 가능하다.

전래동화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게 하여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탄뎀 학습에 유용한 도구이다. 예컨대 결혼이주여성 또한 자녀와 함께 동화책 읽기 활동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어수진, 2011: 153). 따라서 본 탄뎀 학습의 학습내용 및 주제는 참여자인 다문화가정 부모-자녀의 관계, 연구참여자의 한국어-모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다문화 전래동화를 교재로 제안한다.

### 3. 전래동화를 활용한 탄뎀 학습 모델

#### 3.1 탄뎀 학습의 원리와 참여자의 역할

“탄뎀 학습법”은 언어 학습 차원에서 서로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두 학습자가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모국어를 가르치고 목표어를 배우는 자기주도적인 협력학습을 말한다(양춘기, 2016: 74). 예컨대, 탄뎀 학습의 원리인 “상호성 원리”에 따라 탄뎀 학습 참여자는 학습자가 되어 상대방에게 배우는 역할과 동시에 교사가 되어 상대 학습자를 가르치고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자기주도성의 원리에 따라 학습 참여자는 학습 상대방과 협의하여 교사로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교수-학습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즉 학습 목표,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 자료 등을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준비하게 된다(고태진, 2018: 9).

그러나 본 탄뎀 학습의 연구참여자는 다문화가정 부모-자녀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탄뎀 학습법의 장점을 취합하고 응용하여 개발되었기에 본 탄뎀 학습에서 학습 참여자의 역할은 다소 다르다. 예컨대, 본 연구의 탄뎀 학

습 모델에서 주제와 학습목표, 학습내용은 선수학습형식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주어진다. 즉 기존 학습자가 결정하던 주제, 학습목표, 학습내용이 조력자인 교사의 역할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교사의 역할도 기존의 탄뎀 학습법에서의 상담자와 조력자 역할에 덧붙여 지식디자이너<sup>10)</sup>의 역할이 더해진다. 이와 같은 방식은 자칫 학습자의 생각의 폭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자기주도학습을 강요한다면 학습 의욕을 저해할 것이다. 오히려 교사가 지식디자이너가 되어 (자녀) 학습자와 논의의 과정을 통해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을 선택한다면, 선수학습 후 깊은 애착 관계에 있는 부모에게 학습한 내용을 전달하여 학습목표를 이루게 함이 (자녀) 학습자의 의욕을 북돋울 것으로 보인다. 단 학습방법은 (부모-자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요구한다.

또한 본 연구의 “한국-다문화 전래동화를 활용한 탄뎀 학습 모델”은 전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념구현을 목표로 한다.

① 협동학습 - 다문화가정 자녀인 학습자와 학습 파트너인 부모는 과제를 수행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해야 하므로 파트너끼리 서로 협력해야만 과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가족임으로 프로그램 참여 이외의 시간에 함께 논의하여 수업 내용을 예습 복습하고 함께 과제를 완성하는 등 상호의존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모(母)-자(子)가 모두 접근 가능한 한국-다문화 전래동화를 제시하였다.

② 자기주도학습 - 본 수업 모형에는 선행학습, 수업준비 등 조력자인 교사의 도움이 있다. 이후 학습파트너와의 수업 준비, 토의, 과제 작성 및 발표 평가 단계는 모두 학습자 주도로 이루어진다. 특히 본 탄뎀 학습의 연구 참여자는 해당 전래동화를 한국어-모국어 표현으로 전달하려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로 제작된 다문화 전래동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알고 있던 배경지식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10) 미국에서 교수설계자(instructional Designer)로 불리는 지식디자이너는 지식을 주어진 목적에 맞게 조정적으로 실제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양춘기, 2016: 76).

준다는 인지심리학 이론에 기반한다(로버트 파우저, 2021: 171). 즉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에서 습득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배려이다.

③ 교학상장 - 본 수업 모형에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는 학습파트너가 되어 해당 수업의 주제와 내용에 관하여 목표어로 토의하고 협력하여 결과물을 도출해 내어야 한다. 따라서 수업 전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이는 바로 타인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나도 함께 배우는 교학상장(敎學相長)과 맥을 함께한다. 예컨대, 학습자는 파트너와 함께 탄뎀 학습을 통해 지식과 언어 활용 능력이 동반 상승하여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3.2 탄뎀 학습 수업 모델

본 탄뎀 학습 모델의 연구참여자는 다문화가정 모(母)와 자(子) 6쌍 내외인데, 모(母)는 국제결혼이주여성으로 TOPIK 3급 내외, 자(子)는 뇌 발달 단계, 안정적 이중언어 발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초등 3학년 내외를 권장한다. 특히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베트남(32.2%)을 중심으로 베트남과 한국에 존재하는 유사 전래동화를 선정하였다. 다음은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탄뎀 학습을 위한 절차모델이다.

<표 1> 탄뎀 학습의 절차모델

과정	수업 전		수업		수업 후
	회기(총 10)	1회기	1회기	4회기	3회기
단계	협의회	선수학습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평가 및 마무리
참여자	모두	교사-자녀	교사, 부모-자녀		

전체 과정은 총 10회기(주 2회/ 5주 과정)인데, 수업 전 단계(총 2회기)와 수업 단계(총 7회기), 수업 후 단계(총 1회기)로 구성된다. 수업 전 단계는 과정 구조화를 위한 협의회(1회기)와 선수학습 단계(1회기)가 있다. 협의회

에서 교사가 부모-자녀에게 본 과정을 소개하며 시간, 장소, 과제, 평가, 부모-자녀의 역할 등에 대한 구조화가 이루어진다. 선수학습 단계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학습자가 되어 파트너 학습자인 부모에게 전달할 ‘전래동화’를 조력자인 교사와 함께 학습한다. 예컨대 조력자인 교사와 자녀 학습자가 정해진 전래동화를 읽고 어려운 낱말이나 표현을 익히며 내용을 파악하는 기회를 갖는다.

수업 단계는 총 7회기인데, 듣고 말하기(4회기)/ 읽고 쓰기(3회기) 활동에 집중한다. 수업단계에서는 전래동화의 내용과 언어학습의 원리인 제시>연습>활용을 접목하였다. 예컨대 3회기부터 6회기에는 다문화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듣고, 말하기에 집중한다. 특히 3회기 등장인물을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통해 가족 호칭을 배우며 등장인물을 소개한 후, 다문화가정 모-자가 상대를 소개하도록 하였다. 4회기 새로운 낱말을 찾아보고 이를 활용해 낱말 퍼즐 및 빙고놀이를 하며 듣기, 말하기 등을 연습하게 된다. 5회기 읽기 유창성 연습을 위해 전래동화의 본문을 한국어-모국어로 빠르고 정확하게 따라 말하는 연습을 한다. 이후 본문에 해당하는 기초 동사, 직업, 장소 등을 주제로 학습한 후 이를 활용하여 본문 내용 중 재미있는 장면을 그리고, 이를 소개한다. 이를 활용하여 팀 대항 ‘말 전달하기’ 놀이를 한다. 6회기 지난 회기의 ‘말 전달하기’를 확장하여 ‘전체 내용 전달하기’가 진행된다. 특히 6회기 ‘전체 내용 전달하기’를 통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말하기 시험 예를 들면) 3급 ‘그림 보고 이야기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7회기부터 9회기에는 한국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읽고, 쓰기에 집중한다. 특히 7회기 ‘같은 점과 다른 점 말하기’<sup>11)</sup>를 위해 베트남 전래동화 『별나무 이야기』와 유사한 한국 전래동화 『홍부와 놀부』를 제시하였다. 두 작품을 비교하며, 인류 보편가치를 인식하고, 동질감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말하기 시험 예를 들면) 4급 대화 완성하기, 5급 자료 해석하기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8회기 목표어(한국어-모국어)로 원문의 빈칸에 해당하는 낱

11) 위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찾기’는 국립국어원(2019: 51-61)을 참고하였다.



말을 쓰도록 하였다. 목표로 쓰기가 어려운 경우, 주어진 활동지에서 목표어 낱말을 찾도록 하였다. 또한 등장인물에 대하여 직업, 성격, 외모 등을 알아보는 활동을 넣었다. 이후 9회기에는 목표로 등장인물의 직업, 성격, 외모 등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가족의 직업, 성격, 외모 등을 소개하도록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쓰기 시험 예를 들면) 초급 빈칸 완성하기, 중급 가족 소개하기 등을 준비하도록 도우려는 설정이다. 10회기에는 동료 평가 및 마무리가 있는데, 전래동화 내 한국어-목표어 낱말 퀴즈, 본문 내용을 문장으로 배열하기 등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목표어 성취 수준을 알아보고 동료 간 우열을 가리도록 하였다.

한편 듣고 말하기(4회기)와 읽고 쓰기(3회기) 단계의 수업 과정을 마치고 과제가 주어지는데, 듣기 말하기 단계에는 단계마다 학습한 내용을 가정 내에서 반복 학습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학습과정의 동영상 제작을 권장한다. 또한 읽기 쓰기 단계에서는 쓰기 과정이 쉽지 않음을 감안하여 ‘낱말 예시에서 찾기’, ‘문장 정렬하기’<sup>12)</sup>, 재미있는 반복 학습을 위해 ‘빙고 등 게임하기’ 등으로 변형하였다.

마지막으로 탄뎀 학습에서 학습 참여자의 자기주도성을 위하여 평가의 과정은 중요한데, 본 탄뎀 학습 모델은 연구참여자의 학업 참여 정도, 매 회기 제출하는 수업 일지, 듣기 말하기 단계 후 말하기 평가와 읽기 쓰기 단계 후 쓰기에 대한 동료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연구참여자의 언어학습 향상 정도를 반영하여 포상 여부 또한 연구참여자가 결정하게 된다.

본 탄뎀 학습 모델은 수업 후 단계에서 부모-자녀 학습자가 서로의 활동을 반영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단어 및 말하기, 쓰기 등의 평가가 있다. 또한 전체 평가의 내용으로는 매번 학습자의 학업 참여, 수업 일지, 말하기 쓰기에 대한 동료평가로 하되 배점 배분은 부모-자녀 학습자가 정한다. 평가 후 최종회기에는 본 연구참여자와 소감을 나누며 추후 본 학습모형의 수

12) 위 ‘문장 정렬하기’는 이희숙·엄혜영·이노경(2007)의 『스토리텔링 이야기활동 전래동화와 언어교육』, 3장 다수준 학급과 수준별 이야기 활동(45-59p)을 참고하였다.

정·보완할 점 등을 나누게 된다. 이를 정리하여 학습계획서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탄뎀 학습을 위한 학습계획서<sup>13)</sup>

회기	내 용		비 고	
1	탄뎀 학습 소개 및 구조화		역할, 준비물 등	
2	선수 학습	전래동화 읽고 내용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 등 익히기	수업 일지 <sup>14)</sup> 이하 같음	
3	모 국 전 래 동 화	듣고 말하 기	전래동화 속 등장인물 소개하기 탄뎀 학습 파트너 소개하기	동영상, 가족관계도
4			전래동화 속 낱말 익히기 빙고로 익히는 한국어-모국어 낱말	동영상, 낱말 활동지
5			전래동화를 활용한 말 전달하기 주요 장면 꾸미기, 설명하기	도화지, 색연필
6			전래동화 4장 그림으로 설명하기 그림 보고 이야기하기	전래동화 4장 그림
7	한 국 전 래 동 화	읽고 쓰기	같은 점과 다른 점 찾기 같은 점과 다른 점 설명하기	한국 전래동화, 비교 활동지
8			목표어로 본문 내용에 빈칸 채우기 등장인물 직업, 성격, 외모 알아보기	한국어-모국어 전래동화 본문
9			목표어로 등장인물 소개하기 목표어로 가족 소개하기	직업, 성격 등 예시
10	평가 및 마무리	평가 및 마무리 낱말 채우기, 문장 배열하기 등	쓰기 등 평가	

언어교육에서 지속성과 자기주도성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탄뎀 학습 모델은 유용성과 재미를 갖추려 노력하였다. 따라서 매 회기 학습 내용은 다문화가정 모(母)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어능력 시험 중 말하기 시험의 1-6단계를 참고하였다. 특히 1급의 질문에 답하기, 2급의 그림 보고 역할 수행하기, 3급의 그림 보고 이야기하기, 4급의 대화 완성하기, 5급의 자료 해석하기, 6급의 의견 제시하기를 골고루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주관식 답안 작성 방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한편 학습 참여자가 재미있는 반복 학습을 통하여 학습성과를 높이기

13) 위 계획서는 황귀연(2014)의 <표 1> 베트남어-한국어 탄뎀 학습을 참고하였다.

14) 위 수업 일지는 황귀연(2014)의 <그림 1> 베트남어-한국어 탄뎀 학습을 참고하였다.

위하여 매 회기 동영상, 짝 활동, 팀 대항 게임 등을 권장한다. 다만 학습 참여자의 숙달도에 따라 듣기 말하기 단계 또는 읽고 쓰기 단계의 회기를 추가할 수 있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어 기반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내 동반어 교육을 권장하여 가정 내에서 다문화가정 부모 자녀가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모국어를 익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탄뎀 학습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의 심리·정서상의 어려움, 언어 발달 지연,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덧붙여 본 연구의 성공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적는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면대면 학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인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탄뎀 학습 모델은 최적의 선택일 수 있다. 특히 본 탄뎀 학습 모델은 다문화가정 모-자 간의 상호의존성과 자기주도성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모(母)-자(子)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은 가족관계, 직업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본 탄뎀 학습 참여 후 다문화가정 모(母)의 TOPIK 등급 향상이 증명되거나, 자(子)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모국어 능력 향상이 보고된 경우, 이를 자녀의 학생 생활기록부 등에 기재하여 상급 학교 진학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계의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본 탄뎀 학습 모델은 다문화 학생 비율에 맞추어 우선 베트남을 중심으로 전래동화와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으나 추후 중국, 일본,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 유사한 내용의 전래동화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이를 활용하여 탄뎀 학습을 통한 이중언어교육은 물론 상호문화교육 등으로의 확장을 제안한다.

<표 3> 국내·외 유사 전래동화 모음<sup>15)</sup>

	국내 전래동화	국외 전래동화	출처
1	홍부와 놀부	황새(우즈베키스탄), 황금 수박 (오르티코바크리스티나, 2018: 42)	경인교대 한국다문화교육 연구원(2012)
		별나무이야기(베트남) 탕티튀드영(2021: 40)	
2	사윗감을 찾아나선 쥐	쥐가 장가를 가다(중국)	
3	금도끼 은도끼	금구덩이 은구덩이(베트남), 백목원(2018: 702)	
4	콩쥐 팥쥐	신데렐라(서양)	백목원(2018: 699-703)*
		카종과 할록(베트남)	
		마리아(필리핀)	
		땀감(베트남)	
		탕티튀드영(2021: 40) 줌라드와 콤마트(우즈베키스탄) 오르티코바크리스티나(2019: 52)	
5	박도령과 용녀(우렁각시)	어부와 나그네(독일)	
		금붕어(러시아)	
6	청개구리	비를 내리게 하는 파야텐(태국)	
7	선녀와 나무꾼	허리 투메드, 허리어대 메르갱(몽골), 호리대 메리갱*	오정미(2008: 228-229)
		곡녀전설(중국), 견우와 직녀*	
		우의전설(일본), 용국색시*	
		백조소년, swan maiden(서양)	
8	토끼의 재판	배은망덕한 뱀(우즈베키스탄)	오르티코바크리 스티나(2019: 32)

셋째, 다문화 동화가 제시되는 온라인 사이트 ‘올리볼리 그림동화’<sup>16)</sup>,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sup>17)</sup> 등은 다양한 다문화 도서자료와 함께 한국어, 영어, 해당 외국어 등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나 탄뎀 학습에 필요한 동화의

15) 위 자료의 주요 출처는 해당란에 적었으나 중복 출처가 있는 경우, 해당 작품의 하단에 추가하였다.

16) 다음은 해당 사이트의 주소이다. [http://ollybolly.org/?fwp\\_cartoon\\_new\\_or\\_pop=new/](http://ollybolly.org/?fwp_cartoon_new_or_pop=new/) 검색일: 2021.9.19.

17) 다음은 해당 사이트의 주소이다. <https://www.nlcy.go.kr/NLCY/main/index.do/> 검색일: 2021.9.19.

한국어-모국어 원본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가 가정에서 쉽게 자료를 확보하여 탄뎀 학습에 접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한국어-모국어 원본, 단어 및 표현 등)의 개발 및 탑재를 제안한다. 덧붙여 교육부가 발표한 다문화 학생의 부모 출신국의 비율, 해당국의 지방 버전 등을 반영하여 한국어-모국어로 제작된 다문화 전래동화의 발굴과 출판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모델은 연구참여자의 모국어를 기준으로 정해진 다문화 전래동화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기본 과정으로 하고, 다문화가정 부모 학습자가 본국의 전래동화를 제안하는 선택과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한국어-모국어 탄뎀 학습이 원활히 운영된다면, 이에 따른 과생 작품이나 추가 다문화 전래동화들이 모아질 수 있다. 이를 관리하고 가공하여 보급하는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개척 아시아 문학과 한국문학 간 교류와 소통이 가능하데, 이는 세계적인 한국어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인공지능(人工知能, 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해 스스로 진화, 성장 하듯이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협동학습을 통해 창출될 한국-다문화 전래동화는 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가 한국과 세계의 사회, 문화,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혼 이민자나 귀화자들은 한국에 거주하며 출신국 가족들과 초국가적 가족관계망(transnational family network)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이민 배경이 있는 가족들의 생활방식이나 자녀 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148).

본 연구모델은 2021년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과 ‘모바일 만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다문화 가족 간 초국가적 가족 돌봄과 양육 방식의 진화를 불러올 수 있다. 예컨대 다문화가정 부모와 모국에 거주하는 친인척 또는 지인들은 서로 소통하며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에 함몰된 동화를 넘어 한국어와 다문화가정의 모국어를 아우르는 통합의 관점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가치를 인식하며 친밀감, 동질감을 형성하게 된다

면 평화로운 공존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전래동화를 활용한 탄뎀 학습 모델은 다문화가정 모-자에 한정되었으나 추후 다문화가정 확대가족, 또래 청소년, 정주민-이주민 간 등으로 확대하여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본 연구를 시작으로 다문화-비다문화가정 청소년 간 탄뎀 학습을 통한 이중언어교육, 상호문화교육으로 확장할 수 있다. 상호문화교육은 상이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만남이다. 이에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전래동화를 활용한 탄뎀 학습은 동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한국인가정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간의 상호문화교육 방안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제기해 본다. 이를 통해 인종, 종교, 민족, 세대, 계층 등을 아우르며 서로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사회통합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갈라노바딜노자·박미숙·김영순(2016) 우즈베키스탄계 고려인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이중언어교육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2권 2호, 교육연구소, 317-342.
- 경인교대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2012) 『다문화 이웃이 직접 들려주는 다문화 전래동화』, 서울: 예림당.
- 고경민(2012) 아시아 전래동화의 비교를 통한 한국문화교육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화와번역』, 제24집, 동화와번역연구소, 15-38.
- 고경민·이소영(2009)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 문화교육 방안,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제3권 2호 217-242.
- 고태진(2018) 힌디어-한국어 e-탄뎀수업 개발연구, 『남아시아연구』, 제24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1-28.
- 교육과학부(2019) 교육부, 초등학교 한글 책임지고 교육하다, 2019.10.7. 보도자료.
- 교육과학부(2021) 2021년 교육기본통계, 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과, 2021. 8. 26.
- 구선희·유승금(2008)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방안 연구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한국어교육』, 제19호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5-64.
- 국립국어원(2019)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학습도구 3-4학년, 서울: 마리북스.
- 권순희(2009)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제안, 『국어교육연구』, 제34집, 국어교육

- 학회, 57-115.
- 권혁대(2018) 다문화동화집 출간과 활용 연구-이주민들이 안고 들어온 글로컬 문학에 대해, 『동화와번역』, 제35집,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동화와번역연구소, 37-71.
- 김선숙 · 고대영 · 김혜원 · 조요셉 · 최성은 · 민기채(2020)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계층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제31권 3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59-78.
- 김수현 · 채정현(1998) 협동학습법을 적용한 가정과 학습지도안 모형 개발 -중학교 가정의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제36권 5호,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9-74.
- 김영순(2019) 『다문화교육과 협동학습 경험』, 서울: 북코리아.
- 김영순 · 김선정(2020) 『한국 다문화사회의 교육과 복지실천』, 서울: 집문당.
- 김옥선(2010) 다문화사회와 이중언어교육, 『인문학연구』, 제43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493-524.
- 김훈 · 이수정(2021)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 서울: 시대고시기획.
- 로버트 파우저(2021) 『외국어 학습담』, 서울: 혜화1117.
- 모경환 · 이재분 · 홍종명 · 임정수(2015) 다문화가정 학생 언어교육의 국내외 현황 및 언어교육 강화 방안, 『다문화교육』, 제8권 3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197-226.
- 민병곤 · 김호정 · 구본관 · 민현식 · 윤여탁 · 김종철 · 고정희 · 윤대석 · 강경민 · 김가람 · 김영미 · 김지혜 · 김혜진 · 신현단 · 유민애 · 이성준 · 이수미 · 이슬비 · 홍은실(2020) 『한국어 교육학 개론』, 서울: 태학사.
- 박영순(2005) 이중언어교육의 본질과 한국어교육의 과제, 『이중언어학』, 제29호, 이중언어학회, 11-33.
- 박영진 · 장인실(2018)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특성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1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27-260.
- 박옥현(2017)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관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2007) 『다문화사회에서 생각하는 모어교육 -이주가정과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서울: 일지사.
- 박현선 · 이채원 · 노연희 · 이상균(2012) 다문화 가정의 이중언어 · 이중문화적 양육 환경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참여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3권 1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65-388.
- 박혜랑 · 김현철(2016) 다문화가정의 사용언어가 자녀의 언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제54권 4호, 한국교육학회, 165-194.
- 배고은(2011) Tandem 언어학습법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교육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목원(2018) 국내 · 외 전래동화독서활동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학습자중심교과교

- 육연구』, 제18권 8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693-716.
- 손혜진(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연구 -STST Model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채수(2018) 이중언어사회화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남아출신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48집, 아시아문화연구소, 245-280.
- 송향근(2004) Tandem 언어학습법을 통한 한국어 교육방안 -헬싱키대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어교과교육연구』, 제7호, 국어교과교육학회, 53-72.
- 신혜숙·민병철(2021) 부모양육태도가 부모자녀 대화시간과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제42권 2호, 교육연구소, 199-223.
- 안부영(2010) 한국어 교육 제재로서 전래동화가 가지는 이점에 대하여, 『새국어교육』, 86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9-228.
- 안정자(201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 자존감의 관계 연구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대화주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춘기(2016) 플립 러닝 방식을 접목한 중국어-한국어 탄뎀 수업모형 제안, 『중국학』, 제57집, 대한중국학회, 71-92.
- 어수진(2011) 협동학습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방안 연구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세계한국어문학』, 제5집, 세계한국어문학회, 133-174.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19, 3.
- 오르티코바크리스티나(2019). 한국 전래동화와 우즈베키스탄 전래동화의 비교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상철·이화진·장영숙·구영산(2013) 『다문화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오정미(2008)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작품 선정에 관한 문제, 『한말연구』, 제22호, 한말연구학회, 221-250.
- 오혜정(2015)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제17권 1호, 한국특수아동학회, 215-237.
- 원순옥·이화순(2015)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경험 질적연구, 『민족연구』, 62호, 사단법인한국민족연구원, 93-119.
- 유지희·황숙연(2018)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20권 4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69-193.
- 이경화(2019) 기초 문해력과 읽기 부진 지도, 『청람어문교육』, 제71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23-245.
- 이나현(2020) 탄뎀 학습을 적용한 통역 수업 사례, 『중국어문화논집』, 제125호, 중국



- 어문학연구, 75-90.
- 이승숙 · 곽승주 (2013) 다문화가정 유아의 이중언어 경험 탐색 -어머니 모국어 발달 지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제17권 4호,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349-378.
- 이은하(2010)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권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이야기 -경북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제14권 3호,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109-129.
- 이은희 · 이은미(2012)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1호, 한국산학기술학회, 66-72.
- 이춘양 · 김영순(2020) 가정해체를 경험한 이주여성의 자녀 언어 학습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열린교육연구』, 제28권 1호, 한국열린교육학회, 19-46.
- 이희숙 · 엄혜영 · 이노경(2007) 『스토리텔링 이야기활동 전래동화와 언어교육』 (원저: Using Folktales -Cambridge Handbooks for Language Teachers, Eric. K. Yaylor.(2000), Cambridge), 서울: 한국문화사.
- 조항록(2004) 한국어 문화교육의 내용 구성 시론, 『한국언어문화학』, 제1권 1호, 국제한국어문화학회, 199-219.
- 장남혁(2014)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구호 및 개발 연구 -한 필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신교신학』, 제37집, 한국선교신학회, 277-304.
- 진광호(2010) 중국어-한국어 Tandem 학습법의 도입, 『중국학』, 대한중국학회, 제36집, 31-48.
- 탕티튀트영(2021). 베트남인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위한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안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수권(2008) Tandem 학습법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방안, 『독일어와문학』, 제23권 23호, 한국독일어교육학회, 5-25.
- 한명숙(2017) 국제결혼가정 초등학생의 이중언어능력 함양 방안, 『청람어문교육』, 제64집, 청람어문교육학회, 303-333.
- 홍종명(2012)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 -결혼이민자 모국어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6권 3호, 국제지역연구센터, 279-302.
- 황귀연(2014) 베트남어-한국어의 탠덤(Tandem)학습법의 수업 적용방안, 『동남아연구』, 제23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97-120.
- 행정안전부(202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통계표(2019년 11월 1일 기준). 2020. 10. 29.
- Brammerts, H. (1995) *Tandem learning and the internet*. in: Aarup Jensen, Jager & Lorentsen(Hg) 209-222.
- EBS 놀이의 힘 제작진(2020) 『내 아이의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놀이의 힘』, 서울: 성안당.

Glasser. W. (1988, March). *On students' needs and team learning: A conversation with William Glasser*, Educational Leadership, 38-45.

Johnson. D. W. & Johnson. R. T. (1990). *Circles of learning Cooperation in the classroom*, Edina, Minesote: Interraction Book Company.

이름: 박옥현

직위: BK 박사과정 연구원

소속: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BK21FOUR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주소: 22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서호관 221호

전자우편: ok8428@naver.com

이름: 김영순

직위: 교수

소속: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주소: 22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서호관 217호

전자우편: kimysoon@inha.ac.kr

투고일자: 2021년 9월 30일

심사일자: 2022년 1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2월 5일